

제 178 호

예수 부활 대축일

1976. 4. 18.

#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5098)

◆부활 메시지◆

1976년

## 부활과 우리의 기쁨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재덕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활의 기쁨은,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광명한 새 날을 맞이하는 기쁨이요, 세상의 온갖 거짓과 위선이 진리와 사랑에 승복하는 기쁨이며, 시련과 죽음을 통한 영광된 삶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신앙의 토대로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며 동시에 온 세상 모든이들에게 전해야 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안겨준 이 무한한 기쁨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주님의 부활이 반드시 십자가의 시련을 전제로 하듯이 이 기쁨 또한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조소와 박해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를 실천함에서 얻어진 결실이며, 인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얻어진 기쁨입니다. 참으로 죽음을 통한 부활, 시련을 통한 기쁨, 이 두 역설적인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재확인 하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같이 "세례로 그리스도안에 결합된 우리 모두" (로마서 6·3)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수난과 고통에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그리스도생명의 절대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에서 결코 제외된 것이 아니라 험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음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주님의 구속사업에 참여하는 길이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게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는 자연의 법칙을 들어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듯이 참된 인간의 성장과 완성도 아무런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단일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극도에 달하는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순경에서 보다 역경속에서 자신의 삶의 올바른 길을 모

색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일치를 맛볼 수 있었읍니다.

그리스도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역시 필연적으로 이 빠스카의 신비를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에서 그러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당하는 고통들은 교회의 쇠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진통에 불과하며, 이는 결코 교회를 파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찌기 성 테오제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 성도들의 죽음이 고귀한 것이며, 어떠한 포악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멸하지는 못할 것이니,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 위축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확장되며, 주님의 발은 갈수록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씩 떨어진 밀알들이 썩어 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까닭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고통속에서도 위로를 받아 기뻐하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로마서 8·18)에,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고통의 시련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2면에 계속)

### 숲정이 산책



우리도 부활합시다



(2) **순 정 이**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처럼 기쁨과 희망속에 살지 못하고 그저 고통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채 끝없는 고통과 절망속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사람에 따라 그 외적인 양상이 서로 다르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고통이 되고 또 가장 심한 고통이 되는 것은, 자기가 모든이에게서 버림을 받고 있다는 고독함 그것입니다. 즉 이들은 무수한 사람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채, 그저 막연한 집단의 명령속에 소멸 되어버리는 개개인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리 전체안에 흡수될 상태로서 겨우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나, 실제 자신은 조금도 관심의 대상이 못되고 있을 뿐더러 때로는 오히려 더 깊고 강렬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와 민족 또는 자신이 소속된 특정한 집단을 사랑하노라 외치는 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어도 그 구성원 하나 하나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존경하는 모습은 너무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대중을 사랑하노라 말함은 위선이며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까지도 이러한 위선을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 주셨듯이 "잃어버린 한마리 양" (마테오 18·12) 일지라도 이를 찾아 나서야 되겠으며, 또 이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요한 10·11). 특히 사회의 언저리에서 저 버림을 받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할 줄 알아야 하고, 이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씻어주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깊은 관심과 포근한 사랑만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기쁨에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슬픈 얼굴로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중에서도 기쁨이 넘치도록 보다 주님과 일치하는 생활에 힘씁니다. 그리고 고통중에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형제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시다.

끝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축복을 보내며, "희망의 하느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로마서 15·13)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부활 대축일 \*** (기도서 P. 278)

알렐루야, 알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의 바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악과 죽음이 물러가고 새 천지가 펼쳐집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입니다. 기뻐하고 춤을 춥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을 따라 영생의 문 앞에 서며, 새로워진 인간으로서 온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도가 됩시다.

□제1독서 (사도행전 10장 34, 37-38절, p. 290)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다-  
사도 베드로가 고르넬리오 집에서 주 예수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냈다는 증인들의 말을 믿고 안 믿는 데에 영생과 심판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제2독서 (골로사이 3장 1-4절, P. 460)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니 천상것을 추구하라-  
신자들의 인생좌표는 하나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천상의 사물을 구하고 찾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복음 (요한 20장 1-9절, P. 258)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주님의 시신(屍身)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빈 무덤 속에 들어간 사도들은 그제서야 주님의 부활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 또는 (마르코 16장 1-8절, P. 119)

저녁미사 (루가 24장 13-35절, P. 199)

□영성체 후 묵상

애연자들이 노래하던 <야훼의 날>이란 오늘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역사가 오늘을 중심으로 엮여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생한 날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모여 앉아 생명의 빵을 받아먹으며 살아갑니다.

고통중에 계시는 문정현 신부님과 다른 신부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도 알렐루야의 인사를 보냅니다.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물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연탄가스에서 해방, 취사와난방결함  
\*방 전체 따뜻하고 습기 제거  
\*구동이 불필요하며 지붕이 간편

**한국온수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이리시 인화동2가65-16 (전화 4940)  
한 동 압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함

\*여성 여러분에게 맛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 훈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綜合電子**

金星·三星·大韓·東南社,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밥솥, 밥통, 후라이팬 등

\*전주 팔달로변 舊 광주직행 앞  
김중환(원천시오) @ 3332



□는 단□

#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자

김 수 환 주기경(서울대 교구장)

“나는 부활이며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입니다”(요한 11장 26절)  
그리스도는 당신 친히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를 믿고 전하는 것이 사도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전하는 복음선포의 핵심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선포할 때 이는 단지 2천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부활하시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또한 세계와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복음과 신앙에 불충실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참으로 산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대로 충실히 살아야 한다. 복음에 살 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사신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전제인 그의 수난을 우리 스스로 몸소 살아야 한다.

사도 바오로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게 하고 있다”(고린토 후서 4장 10절)고 말씀하셨다. 그는 입으로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필립 2장 8절) 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실로 십자가의 상흔(傷痕)을 지니고 살았다.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도 바오로의 경우와 같이 오직 하나뿐이다. 이는 바오로와 같이 복음정신에 투철하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갈라디아 6장 14절)는 신념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리만큼 이 사회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주저없이 지고 가는 것이다. 특히 불우한 형제들, 우리 자신도 포함한 이 사회 전체의 불의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나눌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비울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복음적 가난에 살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빛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장 13절)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같은 사랑에 우리모두와 온 교회가 깊이 살 때에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참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註: 경향잡지 76년 4월호에서 발췌하였음)

## 요심이 (142)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고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② 4577)

물자절약!

厚靑판, 환봉, 파이프, 스텐  
절단판매, 철공업 정밀가공  
(프레스, 절단, 절곡, 용접)

### 明光輪工

전화 4427

조용덕(라우렌시오)

●군산시 장재동 145(영진주철 옆)

★ 교형 여러분의 집 ★

### 현대 사진관

김낙준(요한)

전화 ③ 5289

주소; 고사동 2가 역전오거리

\*타자기 수리\*

### 전주 뉴 타자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원장 신송무(바오로)  
전화 ② 6664

타자수리, 취업알선, 수시검정

### 김용길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정병준(정아우구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은행 앞

전화 ② 3519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총계 주교회의 (20<화>-23<금>)**  
어려운 이 시대에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교님들께 성신의 충만하심을 기도합니다.
2.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4.19 특별 기도회 - (19<월>)오후, 8시, 가톨릭센터**  
어려운 이 시대, 이 나라를 위하여 신 구교 합동으로 가지는 기도회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가톨릭 방송-5분 명상-〈밤을 잊은 그대에게-사색의 오솔길〉**  
서해방송에서 매일 밤 11시 10분부터 자정 사이에 법석규신부님 의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문 정현 신부님을 위한 헌금 누계 351,801원, 감사합니다.**  
두봉 주교(5,000원), 김정원 신부(10,000원). 푸르실로 전주지구 울뜨레아(18,800원) 이리 동정 성모회(10,000원), 전동 한 요안(3,000원), 중앙 사랑하오신 모친 P. (5,800원), 장 바오로(10,000원). 덕진 남 누가(5,000원), 황등 양베르로(5,000원), 진안 장애동 공소(2,620원), 김제 성모회(10,000원)
5. **의산 나환자촌 공소에 독일, 오지리, 한국 동정 성모회에서 207,200원 헌금, 감사합니다.**  
☐두봉 주교님을 모신 가톨릭 사상 대강연회에 나오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임원 일동

#### (중암)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보좌 신부 김 동 준  
사도 회장 이 상 용

1. **성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문신부님을 위한 헌금**: 진북 1동 이순례씨 5,000원  
 진북 1동 오종금씨 2,000원  
 \* 감사합니다.  
 ◎ **익명 교우분께서 2만원**을 회사하셔 분당에 **화병을 마련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신부 공 아 영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미사시간 변경 (19<월>부터)**: 주일(오전 6시, 10시 저녁 7시반), 아동미사(오후 4시반), 중. 고등학생 특전미사(오후 7시반), 평일(월, 토), 오전 6시 오후 7시반(화, 수, 목) 오전 10시(금)
3. **재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일
4. **교황대사 분당 순시**: 5월 7일 오후 5시
5. **성당 신축 헌금**: 성심 여중. 고 김규승교장(10만원) 덕진 전마리보나(2천원) 누계 4,699,215원  
 ◎ **감사합니다.**
6. **신부님을 위한 헌금**: 이인자(3천원) 길언년(2천원) 박수산나(2천원)  
 ☆ **축결혼** ☆ 4월 19일(월) 오전 11시  
 박윤래(마테오)군, 나현숙 양  
 4월 24일(토) 오후 4시(전동 성당에서)  
 임병곤군 박탄순(마리아)양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 ☆ **축 ☆ 부활의 영광을 형제와 같이 나눕시다.**  
 영세자를 위하여 교형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청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애령회**: 성미 2말, 성금 <김봉활(엘리사벳)>1,000원  
 누계 28,310원  
 ☆ **축결혼** ☆  
 신랑 김은식(라파엘)군과 김영희(가타리나)양

####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미사시간 변경 (5월 1일부터)**: 주일 (오전 5시30분, 10시, 오후 8시)  
 평일: 오전 5시30분 (월), 오후 8시 (화~금)  
 토요일 오후 5시 (어린이 미사)
2. **중. 고등학생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5~6시.

####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박 장 준

- ☆ **부활의 기쁨을 형제와 같이 나눕시다.**
1. **신용 협동 조합 이사회**: 10시 미사후
  2. **볼 관공대 모든 교우들의 협조로 캐비닛, 의자, 책상이 마련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3. **오늘(18일)부활주일에는 아동교리를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아직 성사를 못 보신 분은 부활 주일 동안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양 불 섭  
사도 회장 양 윤 도

1. **부활절 감사예물은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2. **꼬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3. **성가대 월례회**: 다음 토요일 저녁 미사후
  4.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화회, 성가정회, 신임회원을 환영합니다.** ◎ **병자 성사 신고 바랍니다.**
- ◎ **영세자 축하파티**: 부활주일 저녁 미사후

###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수신배임 창 제류인음	사도회 부활축일 행사 교무금을 분납 합시다	31,370원 6,12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등	아치에스 행사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부활 축일기념 배구 대회	원 60,035원 13,445원
		청년회, 애령회, 월례회	22,820원			제 4 지구	중 앙 동 노 송 동 덕 진 동 복 서 학 동 전 동
제 2 지구	대 윤명 동 열	신자들의 일치를 위한 성지참배 교리반 휴강 성세자 환영 및 부활 축하연 학생회 성모회 창립총회	8,080원 56,680원 28,341원 17,805원 21,225원	제 5 : 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진 안 임	본당 청년회 조직 부활축일 기념 배구 대회 미사시간 변경 부활축일 행사 신앙 강좌	7,710원 6,145원 8,320원 13,615원 원 12,235원
제 3 지구	고 금여삼 산 산 산 레	사도회 임시총회 사도회 월례회	3,475원 원 원 15,425원				